

#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

(장남과 독자)

“타고 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못지않은 것이 부모의 양육 방식과 아이가 살아가야 할 환경의 문제라는 것도 언급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린 개체가 태어나 자라나는 동안 성격과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인생의 큰 가닥을 정리해 나가는 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과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이 모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의 경향 외에 후천적인 요소로서 영향을 주는 것들은 기후, 풍토, 사회적 환경 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家庭), 특히 어릴 때의 가정환경이다. 어릴 때의 젖 먹이기, 대소변 가리기, 어머니의 애무, 가족 간의 친근감의 정도나 그 분위기 등은 어린이가 후일 성장하고 난 뒤에까지도 큰 영향을 준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환경에 의해 일반적인 상황과는 좀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는 장남과 독자, 그리고 쌍둥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다

우선 장남의 경우를 보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방식인 대가족 혹은 확대가족에서 이 장남의 역할은 ‘전적인 책임’의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던 우리의 선조들에게서 장남은 가장의 다음 대를 잇는 중요한 직분을 가진다. 동시에 밑으로 태어난 동생들에게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리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진다.

따라서 장남은 아버지와의 동일화를 가장 강하게 이루며 끊임없는 책임감을 강요당한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치게 강박적이 되기도 한다.

외아들은 부모의 과잉보호와 지나친 기대로 인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많이 갖고 살아가기 쉽다. 외아들은 사회화(社會化: socialization)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때로 독선적이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때로는 느닷없이 어른스러워지는 등 태도의 혼란을 겪는다. 그들은 수줍고 소극적이며 따돌림을 받기 쉬운 외아들의 특성을 보상하려고 하는 나머지 거만해지거나 유아독존(唯我獨尊)이 되기 쉽다.

그런가 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딸아이 혼자서 자라는 무남독녀(無男獨女)의 경우에는 딸에게는 가계 계승이 되지 않는다는 관념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이들은 혼자 자라는 아들이 겪는 문제점에 ‘뿌리’의 문제가 더해져 더 심한 고뇌를 느끼게 된다. 지금은 가족의 구성단위가 핵가족화 되어 이러한 문제가 많이 희석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작 당사자 개개인은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특수한 상황에 속하는 쌍둥이는 더욱 문제가 많을 수 있다.

그들은 서로를 분신(分身)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自意識)이 희박하고, 서로의 경쟁심을 억제하여 동심 동체(同心 同體)를 만들며 서로 의존하는 경향이 생긴다. 쌍둥이는 자칫 신체 심상(身體 心像:body image, 자신의 몸을 다른 모든 대상과 떨어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한 대상으로 갖는 개념)의 혼란이 올 수 있다.

어린아이는 그냥 하얀 백지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생물학적인 부모의 성격과 사고(思考)의 경향, 행동의 패턴을 밑그림으로 그리고 나온다. 그 위에 진한 색으로 채색을 하는 것은 그 후의 일이다.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얼마만큼 많은 재료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양육과 교육의 문제이다. 교육의 강도가 낮으면 밑그림이 두드러진다. 타고난 성질대로 살아가기 쉽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육이 강하면 밑그림은 갈수록 표가 나지 않게 된다.

인간성을 논할 때 성선설이 맞나, 성악설이 맞나하는 식의 접근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타고나는 것이 있으되 확일적으로 선(善)과 악(惡)으로 구분되어 나오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은 자라면서 환경과 교육으로부터 배우면서 변해 가기 때문이다.